



답십리 '안전 보금자리'로 탈바꿈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답십리16재개발현장

취재 연승기 기자 skyway@safety.or.kr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동(踏十里洞). 이곳 명칭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왕도를 정하려고 도성에서 10리 떨어진 곳을 밟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이 때문일까. 답십리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성부에 속해 있을 정도로 서울 동북권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런 답십리가 최근에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답십리 뉴타운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이곳은 서울 도심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교통요지로 이름이 높은 청량리가 인접해 있어 여느 뉴타운 지역보다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 가운데에도 답십리16 재개발현장에 대한 이목은 남다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리딩사로 시공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량리역과 신답역, 답십리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부 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 가깝다는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는 청계천, 답십리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생활여건이 쾌적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만큼 재개발이 완료되면 삼성물산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이다. 이처럼 건설사의 이름이 걸린 만큼 이곳 현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답십리16 재개발현장에서는 어떤 안전활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리정돈의 생활화 및 사고예방에 만전

현재 이곳 현장은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는 한편 지하층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건설현장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공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협착 위험이 상당히 큰 편이다. 또한 골조공사에 따른 추락과 비래사고 위험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철저하게 '일일 시공사이클활동 → TBM활동 → 정리정돈 생활화 → 위험예지활동 → 동선관리활동' 순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정5S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정리정돈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장의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고위험이 감소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별, 팀별, 작업별로 TBM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자체 기술력으로 안전사고 원천차단

수많은 작업이 이뤄지고 근로자들의 이동이 잦은 공정에서는 동선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사고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와 장비가 이동하는 동선을 별도로 구획해 놓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곳 현장에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기술을 적용해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예가 차량 후진에 따른 협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WATCH'를 개발·설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I-WATCH'는 차량 후면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감지센서기와 현장 곳곳에 설치된 반응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에 진입하는 모든 건설차량에서는 이 감지센서가 부착되는데, 이들 차량이 후진할 때 센서기와 감지기 사이에 물체가 인식되면 곧바로 경고음과 경광등이 울리게 된다. 즉 운전자와 근로자, 신호수가 인지하지 못한 사고 위험을 이 기계가 알려주는 것이다.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I-WATCH'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며, 삼성물산의 모든 건설현장에 배치될 계획에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문성에 전문성을 가미한 안전관리 전개

이곳 현장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전개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불필요한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기작업 일일허가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강풍에 의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풍속 이상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장 곳곳에는 화재감지기, 방독면, 비상대피로 등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안전관리 전문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건설현장과 달리 건설기계 전담 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는 것이다. 그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의 허점은 찾아볼 수 없다. 먼저 수많은 건설기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곳 건설기계 전담 관리자는 장비에 대한 기능상 점검부터 사용에 따른 관리 감독, 안전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즉 안전관리의 역량을 한층 높이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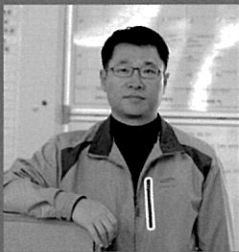
약 1,000명에 달하는 이곳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조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 역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근로자가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도 보건관리자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응급처치를 했기에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자칫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으나 전문인력에 의한 시의 적절한 대처가 빛난 것이다. 이곳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근로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은 이유가 바로 이처럼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위험요소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답십리16재개발현장. 안전으로 만들어지는 이곳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미니 인터뷰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은 ‘안전’입니다”



유동열 차장·안전팀장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절대가치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현장에 들어설 때부터 나설 때까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것이 안전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 저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통에는 근로자와의 소통은 물론 업체, 각 분야별 시공팀, 팀원 등 현장 구성원

모두와의 소통이 포함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현장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이 내 동료,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영배 현장소장·건축시공기술사

건축물의 품질은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회가 생겼을 때 반드시 움켜잡아야 하는 것이 안전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각종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는 물론 휴먼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대재해가 날 확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려서도 안됩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현장 근로자 모두가 인정해 주는 그런 안전관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